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1천 km ² (한반도의 1/20)	G D P	1,669억 달러 (2015년)
인구	242만 명 (2015년)	1 인 당 GDP	68,940달러 (2015년)
정치체제	세습군주제	통화단위	Qatar Riyal (QR)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노선	환율(달러당)	3.64 (2015년)

- 아라비아 반도의 동부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타르는 인구 242만 명, 국토 면적 11천 km²에 불과한 소국임. 인도, 파키스탄 등지로부터 온 이주민이 많고, 수니파 이슬람교 외에도 기독교를 인정하는 등 인종·종교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국가임.
- 원유 및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인당 GDP 세계 4위의 경제 부국임.
- 절대왕정 국가로 19세기 중반 이후 Al Thani 가문이 왕위를 세습하고 있음. 1995년 무혈 쿠데타로 집권한 Hamad 前국왕은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현재 그의 아들인 Tamim 국왕의 통치 하에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중립·실용주의 외교노선을 추구하여 서방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분쟁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제성장률	4.9	4.6	4.0	3.7	2.6
소비자물가상승률	1.9	3.1	3.4	1.8	3.0
재정수지 / GDP	11.0	22.2	15.0	5.4	-7.6

자료: IMF.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부문의 침체로 경제성장률 하락

- 카타르 경제는 2000년대 초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투자 증대에 힘입어 2006~10년 중 연평균 18%의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지속 둔화하고 있음.
- 2015년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로 전년 (4.0%) 대비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원유가격 추이(두바이유, 달러/배럴): 109.1('12) → 105.5('13) → 97.1('14) → 51.2('15)

** 원유생산량 추이(천 배럴/일): 1,931('12) → 1,903('13) → 1,893('14) → 1,886('15)

-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월드컵 개최(2022년 예정)에 대비한 건설 인프라 투자 증대 및 비석유 부문 육성 노력, Al-Shaheen 유전의 신규개발을 위시한 자본투자 등에 힘입어 3% 내외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유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최근 수년간 3%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카타르 리얄(QAR) 환율은 2008년 이후 달러당 3.64리얄 유지

- 2015년 물가상승률은 원유·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전년(3.4%) 대비 1.6%p 하락한 1.8%를 기록함. 그러나 2016년에는 연료보조금 폐지*,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으로 3.0%로 상승할 전망이다.

* '16.1월 무연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무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26달러에서 0.34달러로 약 30% 상승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16년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카타르는 원유수출 수입(收入)이 세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정구조로 2014년까지 고유가에 힘입어 GDP 대비 10%를 상회하는 막대한 재정흑자를 시현함.
-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급속히 진행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수가 급감한 반면, 재정지출은 각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지속으로 최근 몇 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 이에 2015년 GDP 대비 재정흑자 비중이 5.4%로 전년(15.0%)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 다만, IMF에 따르면 카타르의 균형재정 유가는 배럴당 62.1달러(2016년 기준)로 GCC 회원국 중 쿠웨이트(47.8달러) 다음으로 낮아 유가하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천연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로 에너지 가격 및 수급변동에 취약**

-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에서도 석유 화학 분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이에 경제성장이 원유·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변동과 생산량 추이에 크게 좌우되는 경제구조임.
- 2014년 기준 에너지 부문이 GDP의 50%, 재정수입의 80%, 수출의 87%를 차지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타 중동 국가와 경제구조가 유사함.

□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민간 부문이 취약**

- 카타르는 총인구의 80%, 경제활동인구의 90%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외국인 의존도가 매우 높음. 아울러, 2022년 월드컵 개최 확정에 따른 인프라 건설 확장으로 인도, 파키스탄 등지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카타르 인구 추이(만 명) : 205('13) → 224('14) → 242('15) → 258('16)

- 자국민은 대부분 공공 부문에 종사함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은 외국인 이주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짐. 그러나 낮은 소득수준,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아 민간 부문의 발전이 더딤.

나. 성장 잠재력

□ **원유·천연가스 등을 다량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

- 한반도 면적의 1/20에 불과한 소국이나 2015년 기준 원유 257억 배럴(세계 13위), 천연가스 24.5조 m³(세계 3위)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부국이자 OPEC 회원국임.

-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최대의 단일가스전(North Field, 전세계 매장량의 15% 차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 생산량 유지 시 138년 동안 채굴 가능한 규모로 추정됨.

다. 정책성과

□ **장기 국가개발계획 “카타르 국가 비전 2030” 추진 지속**

- 카타르 개발기획처(GSDP)는 에너지 중심 경제구조 탈피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08년 10월 장기 국가개발계획 “카타르 국가 비전 2030”(Qatar National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기계획 “국가발전전략 2011~2016”을 수립함.

- 정부는 “국가 비전 2030”에서 5대 과제*와 4개 분야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22년 월드컵 개최와 연계하여 향후 10년 간 교통·물류, 의료 등 인프라 구축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①현대화, ②전통 보존, ③관리 성장과 자유로운 확장, ④환경을 생각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발, ⑤노동력 개발 및 노동시장 균형

** ①인적자원 개발, ②사회개발, ③경제개발, ④환경개발

-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일부 프로젝트의 중단·지연이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2016년 15년 만에 적자예산 편성을 감행함으로써 주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지속 추진 의지를 보임.

□ 특별경제구역 조성,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투자 증진 도모

-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 카타르경제구역공사(Manateq)를 설립하여, 2018년까지 3개 특별경제구역*(SEZ)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Ras Bufontas, Um Alhoul, Al Karaana

- 아울러, 2015년 9월 ‘신규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조항 삭제’, ‘카타르 금융센터(QFC) 활용 시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 신규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 상 수 지	62,000	60,461	49,410	13,751	-2,885
경 상 수 지 / G D P	32.6	29.9	23.5	8.2	-1.8
상 품 수 지	102,167	101,861	95,557	48,798	27,469
수 출	132,954	133,336	126,702	77,294	61,232
수 입	30,787	31,475	31,145	28,496	33,763
외 환 보 유 액	31,957	41,022	42,192	35,991	35,166
총 외 채 잔 액	161,374	163,373	166,950	154,188	157,403
총 외 채 잔액 / GDP	84.8	80.4	79.5	80.6	79.9
D S R	5.3	6.5	6.9	11.2	11.4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지 흑자 대폭 감소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 전망**

- 카타르는 2011~14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막대한 상품수지 흑자와 GDP 대비 20~30%대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음.
- 경상수지는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천연가스 수출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규모가 작고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그러나, 2014년 7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수출 감소로 2015년 상품·경상수지가 전년대비 각각 1/2, 1/3 수준으로 급감함. 2016년에도 저유가 지속 및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가 GDP 대비 1.8%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400억 달러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2014년 422억 달러까지 증가함. 2015년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36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월평균 수입액 대비 5.7개월로 안정적임.
- 아울러, 지속적인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3,350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QIA, 세계 14위) 운용을 감안 시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편임.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80% 내외로 높은 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08년 이후 천연가스 개발 및 LNG 생산 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으로 크게 상승한 결과, 80% 내외로 GC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 2016년 총외채잔액/GDP(%) : 사우디아라비아(19.4), 오만(30.9), 쿠웨이트(40.6),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4년까지 한 자리수로 안정적이었으나, 2015년에는 원유수출 감소로 인해 11.2%로 상승하였고 2016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Tamim 국왕의 통치 아래 정치안정 지속

- Tamim 국왕은 2013년 6월 아버지 Hamad 前국왕의 갑작스러운 왕권 이양에 따라 33세의 나이에 새 국왕으로 즉위한 후, 단기간에 신규 내각을 구성하여 정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Hamad 前국왕의 개혁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
 - Hamad 前국왕은 2003년 3권 분립의 토대가 된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함. 이에 근거하여 자문위원회에 의회 기능 보장, 종교법원과 일반 법원의 일원화 등 입법·사법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함.
 - 아울러 Tamim 국왕은 즉위 직후 총리와 에너지부 장관이 각각 국부펀드(QIA)와 국영석유회사(Qatar Petroleum)의 CEO를 겸임하던 관례를 종식시켜, QIA와 Qatar Petroleum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왕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낮은 부정부패 수준 등 정치불안 요인이 거의 없어 당분간 정치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중립 외교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로 사회안정 지속

- 카타르는 ‘중동의 스위스’를 표방하며 중립노선 유지와 치안 강화를 통해 각종 테러가 빈번한 중동 지역에서 테러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음.
 - 카타르는 이슬람 수니파 국가로서 아랍 각국의 이슬람주의 세력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개신교·가톨릭 신자를 위한 교회·성당의 운영도 허용하는 등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함.
 - Global Peace Index 2016에 따르면 카타르의 세계평화순위는 163개국 중 34위,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함.

□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가 사회불안 요인이나 통제 가능한 수준

- 절대왕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소득* 및 풍부한 복지혜택에 힘입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는 등 사회불안 요인은 미미한 수준임.

* 2015년 기준 1인당 GDP가 68,940달러로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4위이며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상회함.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 발표한 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카타르는 167개국 중 134위로 독재(Authoritarian) 국가에 해당함.

- 최근 건설 부문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급증에 따라 열악한 근로환경, 임금체불 등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적 유화책을 병행하여 소요사태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음.

- 2015년 현지 스폰서의 허가 없이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우를 다소 개선함.

3. 대외관계

□ 다각적·독자적 실용주의 외교노선 유지

- 카타르는 실리와 균형을 중시하는 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해 역내 아랍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방 국가들과도 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GCC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강경 이슬람 세력과 온건·중도 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함. 또한 예멘 정부-후티 반군, 이스라엘-하마스 간 갈등 중재를 통해 아랍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을 제고함.

- 나아가 미국 및 EU 국가들과는 군사협정 체결, 군사기지 제공 등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개발을 위해 석유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임.

□ **무슬림형제단 지원을 둘러싸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 잠재**

- 카타르는 2012년에 집권한 이집트 Morsi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적극 지지하였고, Morsi 대통령 축출(13.7월) 후에도 잔여 세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갈등을 빚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규정

- 이로 인해 201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3개국이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함. 동년 11월 해당 국가의 대사들이 카타르로 복귀함에 따라 사태가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갈등이 잠재해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높은 총외채 비중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위험은 낮은 편**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80% 내외로 GC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중장기 외채로 구성(총외채의 75%)되어 있어 외채구조는 양호한 편임.
- 아울러 외환보유액의 9.5배에 달하는 국부펀드(3,3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6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앞 외채총액 169.4억 달러(단기 2.4억 달러, 중장기 167억 달러)중 연체금액은 90만 달러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IMF 및 세계은행 앞 연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

2. 국제시장평가

□ **OECD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유지**

- OECD는 2013년 1월 이후 3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신용평가 3사는 저유가 지속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민소득, 풍부한 대외자산 등을 근거로 OECD 1등급에 해당하는 'AA' 수준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B1 (2016. 11)	B1 (2015. 3)
OECD	3등급 (2016. 1)	3등급 (2015. 1)
Moody's	Aa2 (2007. 7)	Aa3 (2006. 10)
Fitch	AA (2016. 9)	AA (2015. 3)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74년 4월 18일 (북한과는 1993년 1월 11일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기술·무역협력협정(1984), 문화협력협정(1987), 투자보장협정(1999), 항공협정(2009), 이중과세방지협정(2009), 치안협력협정(2010), 고위급전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2012), 군사협력협정(2014)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9월말 기준 85건, 67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4> 한·카타르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9	주요 품목
수 출	852	904	674	387	건설광산기계, 자동차, 전선
수 입	25,874	25,723	16,475	7,056	천연가스, 원유, 석유제품, LPG
교역규모	26,726	26,627	17,149	7,443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2위 수입대상국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중동 지역 제2위 수입대상국(1위는 사우디아라비아)으로, 2015년 기준 총수입액 중 천연가스와 원유의 비중이 각각 46.0%, 42.8%로 대부분을 차지함.

V. 종합 의견

- 카타르는 원유·천연가스 의존적 경제구조로 2000년대 중반 자원개발과 연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을 달성함.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 둔화되어 2016년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됨.
-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수출 및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 및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 2016년에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쌍둥이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 즉위한 Tamim 국왕은 신규 내각 구성 및 Hamad 前국왕의 개혁 정책 이행 등을 통해 정치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중립노선 표방으로 타 중동 국가에 비해 테러 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어 사회불안 요인도 미미한 수준임.
- 천연가스 개발과 LNG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외자 도입으로 총외채잔액이 과중한 편임. 그러나 중장기 위주의 외채구조, 풍부한 대외자산 등을 고려할 때 외채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조재동(☎02-6255-5727)
E-mail : jjd8948@koreaexim.go.kr